



2008년 세계 및 국내 경제전망

본고는 최근 (07.10~08.2)에 발표된 주요 경제 연구기관의 08년 국내외 경제 전망을 종합 요약한 것이다.

1. 세계 경제

08년 세계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산의 영향에 따른 신용시장의 경색과 미국경기의 부진으로 일본, 유로권 등 선진지역은 최근 수년간의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세계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07년 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3.3~4.8%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도 비슷한 추이를 따를 것으로 보이며,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미국경기둔화의 장기화가능성, 주요국의 주택경기 둔화폭 확대, 고유가 지속, 엔케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글로벌 물가안정에 일조해 온 중국의 물가상승, 그리고 일부 신흥경제의 버블양상 등이 잠재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08년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세계	선진국			개도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IMF	4.8	22	19	21	17	7.4	10.0
[07.10]	(5.2)	(2.5)	(1.9)	(2.5)	(2.0)	(8.1)	(11.5)
EU 집행위	4.7	22	17	22	19	7.5	10.3
[07.11]	(5.1)	(2.5)	(2.1)	(2.6)	(1.9)	(8.0)	(11.2)
OECD	-	2.3 ¹⁾	20	19	16	-	10.1
[07.12]	-	(2.7)	(2.2)	(2.6)	(1.9)	-	(10.7)
Global Insight	3.3	-	19	19	15	-	10.7
[07.12]	(3.7)	-	(2.1)	(2.6)	(2.1)	-	(11.4)
IF	-	-	25	23	21	-	11.5
[07.10]	-	-	(2.0)	(2.5)	(2.0)	-	(12.0)

※ 주 : 1) () 내 수치는 07년 성장률, 2) [] 내는 전망시점, 3) ¹⁾ OECD 회원국 기준 4) IF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미국 경제는 주택경기 침체 지속,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소비둔화, 고용가동의 부정적인 요인과, 지속적인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부문의 다소 확대,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모기지 부실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라는 긍정적 요인의 혼조 속에 상저하고의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 경제는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유로화 강세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성장세 약화, 설비투자의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구조 개선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 여건이 회복되고 민간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GDP 성장률이 07년 2.5% 수준에서 2.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시장 불안 및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국과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이 07년 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지원을 통한 소비 및 투자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는

0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는 상저하고의 성장세로 민간소비 부진 등 내수 약화, 주택투자 감소폭 확대,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율 하락 등의 악재 속에서도 개도국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져 1% 후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건축착공의 대폭 감소 장기화, 원자재 가격의 급등 지속,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의 심각화, 신흥시장의 버블 붕괴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일본 정부는 경기하강을 의식한 정책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성장 과열을 우려한 정부의 금리인상 등의 긴축정책으로 투자 및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지만, 국내소비의 안정적인 증가세와 균형성장을 위한 내륙지역 투자 등으로 10% 내외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물가불안 및 자산 버블에 따른 경착륙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미국경기 감속,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07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겠으나 여전히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고유가 지속, 서브프라임 부실 영향의 확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아시아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아시아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IMF (07.9)	ADB (07.12)	Global Insight (07.12)	*투자은행 (07.12)
홍콩	4.7	5.4	5.5	5.0~5.5
대만	3.8	4.8	4.6	3.9~4.3
싱가포르	5.8	6.3	5.3	5.2~7.3
태국	4.5	4.8	5.0	4.0~5.1
말레이시아	5.6	5.9	5.4	5.2~5.8
인도네시아	6.1	6.4	5.8	5.6~6.5
필리핀	5.8	6.4	5.2	5.5~6.7
인도	8.4	8.5	8.6	7.4~8.5

* 주: 1) ()내는 전망 시점
2) *투자은행은 5개 투자은행(J.P.Morgan, Deutsche bank, Lehman Brother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의 전망치

중남미 경제는 미국 및 유로지역 등의 경기 둔화, 물가 상승압력 증대에 따른 내수 진작 정책 제약,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IMF (07.10)	4.0	3.0	5.5	6.0	5.0
OECD (07.12)	4.5	3.6	-	-	-
Global Insight (07.11)	5.1	3.0	6.5	7.4	5.1
JP Morgan (07.11)	4.7	3.2	6.0	4.0	5.0
Morgan Stanley (07.12)	4.3	3.2	6.2	6.0	5.2
Goldman Sachs (07.12)	4.5	3.3	6.0	5.3	4.9

2. 국내 경제

07.12월 및 08.1월 전망시점에서 대부분의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08년 우리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 경제 둔화로 국내 수출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소비와 설비투자를 주축으로 한 내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로의 수출 신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07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08.2월 삼성경제 연구원은 서브프라임 문제 발생 이후 08년 들어 세계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더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경기상승세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점차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0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5% 전망에서 07년 4.9% 성장률보다 낮은 4.7%로 하향 수정하였다.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이 전망되지만 교역조건 악화 및 고용회복 부진 등으로 인해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반기별로는 상반기 성장률이 하반기에 비해 높은 상고하저의 패턴이 예상된다.

미국경기나 환율, 유가 및 국제 원자재 추이 등 해외 부문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미국경기 하락과 유가의 고공행진이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의 경기흐름을 반전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이 맞물릴 경우 07년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와 자산효과 축소 등의 둔화요인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 증가세 확대와 점진적인 고용개선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4% 중반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고정투자 부문에서, 설비투자는 소비회복과 높은 가동률에 따른 투자압력 증가의 호재와 세계경제 둔화와 글로벌 신용경색 등의 부정적인 요인 속에 04년 이후 평균 수준인 연간 6% 후반대 정도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08년 건설투자는 대규모 국토균형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주택거래 관련 부동산 정책도 일부 완화되면서 점차적으로 회복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명 (전망시점)	08년
삼성 경제연구원 (08.2)	4.7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08.1)	5.0
LG 경제연구원 (07.12)	4.9
산업연구원 (07.12)	5.0
한국금융연구원 (07.12)	4.8
삼성 경제연구원 (07.11)	5.0
하나 금융경영연구소 (07.10)	5.2

08년 대외거래에 있어서, 수출은 세계경기의 감속성장, 글로벌 달러화 약세, 위안화 추가절상 압력에 따른 원화강세, 고유가 지속 등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주력품목의 경쟁력 향상으로 전년 대비 10~12%대의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수입은 국제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고유가와 민간소비 등 내수가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의 증가가 확대되면서 07년 보다는 낮지만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내수경기의 완전한 회복에 따른 총수

요 압력의 증대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04년 이후 처음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제 소비재와 원자재 수입을 통해 중국발 물가상승이 국내로 파급되고,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완화효과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08년도 노동시장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국내 투자 확대 및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강화되어 07년 보다 낮아질 것이며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순환적 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3. 환율

08년도 미달러화는 미국의 경기둔화 상황과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 및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속화의 영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달러/유로 환율은 경우 유로화의 과도한 강세에 대한 경계심으로 추가 상승은 억제되고,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의 자체 스케줄에 따라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08년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와 국내경기의 내

〈주요 국제 은행의 08년 평균 환율 전망〉

주요 국제 은행 (전망연월)	달러/엔	유로/달러	원/달러
JP Morgan (07.12)	101	1.55	953
Morgan Stanley (07.12)	107	1.39	920
Citi Group (07.11)	110	1.53	890 ¹⁾
Lehman Brothers (07.11)	104	1.37	894 ¹⁾
Goldman Sachs (07.11)	111	1.40	942 ²⁾

※ 1)의 전망시점은 07.12월, 2)의 전망시점은 08.1

수경기 회복세와 수출의 호조 등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자본 이탈 가능성, 경상수지 적자 반전 등의 상승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경기 둔화 및 추가 금리인하가능성, 중국 위안화 절상 폭 확대 가능성 등과 같은 하락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화는 주요국 환율에 비해서 절상률이 크지 않고, 변동성 또한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4. 유가

08년 국제유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전반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수요가 견실한 가운데 산유국의 증산여력 제약, OPEC의 증산 의지 미약과 고유가 유지 정책, 미 원유재고 부족과 노후설비의 가동률 저하 등에 따른 공급불안 확대, 지정학적 위험 고착화 등으로 07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K**

〈주요 기관의 연평균 유가 전망〉

(달러/배럴)

주요 기관(전망 시기)	기준 유종	2008년				
		연간(평균)	1/4	2/4	3/4	4/4
CERA (07.11.30)	Dubai	73.6	79.3	74.5	70.5	70
	Brent	76.7	82.5	77.5	73.8	73.0
	WTI	79.0	85.0	80.0	76.0	75.0
EIA (07.12.11)	WTI	84.8	87.0	87.3	84.0	81.0
PIRA (07.12.21)	Brent	78.6	88.0	80.2	73.1	73.2
	WTI	80.4	89.7	82.0	74.7	75.0
CGES (07.11.19)	Brent	77.0	91.6	85.3	70.7	-

주: 1) 기준유가 기준

2) 자료: CERA(미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 EIA(미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 CGES(세계 에너지연구소)

*참고자료

- 08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현안, 최근의 세계 경제동향과 08년 전망 (한국은행, 07.12)
- 08년 세계경제 전망, 08년 국내경제 전망 (LG경제연구원, 07.12)
- 08년 세계경제 및 국별 전망 (세계무역연구원·KITA, 07.12)
- 08년 거시경제 전망 (산업연구원, 07.12)
- 08년 한국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07.11)
- 08년 세계 경제 및 국별 전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07.12)
- 07년 세계경제 동향 및 08년 전망 (한국 수출입은행, 08.1)
- 세계경제동향 및 08년 전망 총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7.12)
- 07년 경제회고와 08년 전망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08.1)
- 08년 경제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07.12)
- 08년 경제·금융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07.10)
- 최근 환율 동향 및 08년도 환율전망 (수출보험공사, 08.1)
- 08년 세계 및 국내경제전망 (삼성경제 연구소, 08.2)